

우루과이

REPUBLIC of URUGUAY



I. 일반개황

면적	178천 km ²	G D P	193억 달러(2006)
인구	3.46백만 명(2006)	1 인 당 GDP	5,581 달러(2006)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Peso(Ps)
대외정책	친서방, 우경중립	환율(달러당)	24.07(2006년 말)

- 남미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우루과이는 브라질의 남부공업지대와 아르헨티나의 동부 산업중심지인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잇는 요충지로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행정, 물류, 금융,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음.
- 동국은 목축업, 농업 등 1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양모와 육류는 동국의 전통적인 수출품으로 자리잡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며, 백인(90%) 중심의 중산층이 발달하여 있음.
- 1999-2002년 주변국의 경제위기 전염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3년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경제적 강점	경제적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및 수출 호조의 지속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 MERCOSUR 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게 감소함. · 경제 및 정치체계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고학력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친시장적 경제정책 추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기반 미약하여, 1차 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자본재, 소비재 등 대부분을 수입하는 외부의존적인 경제임. · 국내 소비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어 물가상승률 상향 추세에 있음. · 채무재조정에 성공하여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으나, 총외채규모가 경제 규모에 비해 과중한 편임.

II. 경제분야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f
경제성장률	2.2	11.8	6.6	7.0	6.0
재정수지 / GDP	-4.0	-2.4	-1.8	-1.5	-1.4
소비자물가상승률	19.4	9.2	4.7	6.4	7.5

자료 : EIU.

□ 2004년 이후 경제성장세 지속

- 우루과이는 농목축업, 금융업, 관광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나, 1999년 이후 2002년까지 주요 교역상대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에 전연되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등 금융 불안과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함.
- 2003년 5월에 GDP의 약 45%에 해당하는 54억 달러의 채무재조정에 성공한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고, 경제도 점차 성장세를 회복함. 2004년에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기회복, 멕시코와의 FTA 타결, 미국의 무역특혜 확대 등 대외경제여건의 개선으로 주력산업인 농축산업의 수출호조가 지속되면서 11.8%의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함.
- 2005년에도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경제성장 지속과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호조, 농업, 공업, 교통분야에 대한 활발한 국내 고정자산 투자수요에 힘입어 6.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 역시 고유가 및 국제금리 상승, 수입증가세의 수출증가세 초과 등에도 불구하고, 내수 및 수출 호조에 힘입어 7.0%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함.
- 최근 몇년간의 경제성장 지속세는 2007년도에도 계속될 전망으로, 임금소득 및 고용증가에 따른 국내수요 급증, 수출호조의 지속에 힘입어 6.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률 상향 추세

- 물가는 폐소화 평가절하의 영향으로 급상승하여 2002~03년에 각각 14%와 19%를 기록함. 2004년에는 폐소화 안정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와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16%를 기록하였으나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인플레이션 관리에 힘입어 2005~06년에는 각각 4.7%와 6.4%로 낮아짐.
- 2007년에는 국내소비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4.6~6.5%)를 넘어선 7.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재정수지 적자 폭 감소 추세

- 우루과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2001~2003년에 각각 GDP 대비 4.67%, 3.5%, 3.9%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년간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하였으나,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등에 힘입어 적자규모가 2004년 GDP의 2.4%, 2005년 GDP의 1.8%, 2006년 GDP의 1.5% 등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음.
- 2007년에도 정부의 긴축정책 지속과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1.4% 수준으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제조업 기반 미약 및 외부의존적 경제구조

- 우루과이 경제는 금융, 관광 등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으나, 제조업 부문이 취약하고 인프라 설비가 미비하여 자본재, 소비재 및 석유제품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 주요수출품목이 양모, 육류 등 1차 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제가격 변동과 기후조건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수출구조도 취약함.

□ 수출시장 다변화 및 친시장적 경제정책 추진으로 외국인투자유치 노력

- 우루과이는 최근 몇 년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음. 특히

MERCOSUR에 대한 수출 비중은 1998년 44%에서 2006년 23.8%로 감소하였음. 반면 수입은 아직도 MERCOSUR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2006년 수입액중 45.7%가 MERCOSUR 내에서 수입되었으며, 특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의 수입액이 동일하게 22.6%를 차지하였음.

- 우루과이는 경제 및 정치체제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고학력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바스케스 정부의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친시장적 경제정책 추진으로 향후 외국인투자유입 증가가 예상됨.

□ IMF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통적 경제프로그램 추진

- 2005년 6월 IMF와 3년 만기 11억 달러의 대기성차관 협약을 체결한 이후, IMF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긴축재정, 인플레이션 통제, 구조개혁 및 경제 부문별 경쟁력 제고, 외국인투자유치 등 정통적인 경제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2006년 6월 IMF는 4번째 검토를 마치고 우루과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음. 바스케스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빈곤축소를 위해 2006년 GDP의 16%를 차지한 총고정투자액을 2010년에는 20%까지 증가시킬 계획임. 또한 지속적인 긴축재정정책 추진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축소(2006년 GDP 대비 1.5%)시키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임.

□ 조세개혁 및 채무구조개선이 최우선 과제

- 조세개혁을 통한 세수증진 및 채무구조개선을 통한 채무부담경감이 바스케스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의회내에서 통과가 지연되었던 조세개혁안이 2006년 12월 통과되었으며, 2007년 7월부터 시행됨. 조세개혁안의 핵심내용은 조세시스템 단순화 및 개인소득세 도입이며, 이와 함께 조세행정체계 개선을 통한 탈세축소 및 세금징수기관의 효율성 증가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우루과이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양호한 조건을 이용하여 2002~03년 당시의 고금리 채무를 채권발행을 통해 장기 및 저리의 신규 채무로 전환하는 채무구조개선 작업을 진행하여 왔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f
경 상 수 지	-56	43	28	-500	-500
경 상 수 지 / G D P	-0.5	0.3	0.2	-2.6	-2.6
상 품 수 지	183	153	28	-500	-600
수 출	2,281	3,145	3,758	4,400	4,600
수 입	2,098	2,992	3,730	4,900	5,200
외 환 보 유 액	2,079	2,507	3,068	3,068	3,392
총 외 채 잔 액	11,457	12,376	12,229	12,348	11,200
총 외 채 잔 액 / G D P	102.5	93.6	72.8	63.9	58.8
D . S . R .	47.9	37.1	47.0	79.7	24.2

자료 : IMF, EIU 및 세계은행.

□ 수출증가세 지속 전망

-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과 최대수출시장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5년 상품수출액은 전년대비 19.5% 증가한 38억 달러, 2006년 상품수출액은 전년대비 17.1% 증가한 4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7년에도 수출호조세가 지속되어 상품수출액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46억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전망

- 우루과이는 주변국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에 힘입어 2004~05년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 이후 다시 적자로 전환됨.
- 2006년에는 지속적인 국내 소비 및 투자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을 큰 폭으로 상회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액이 5억 달러로 확대됨. 2007년에도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경상수지 적자액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됨.

□ 외채규모 및 외채원리금 상환부담 과중

- 우루과이는 2002년 발생한 대규모 외화예금인출사태와 폐소화 환율인상으로 인해 IMF(28억 달러), 세계은행(5억 달러), 미주개발은행(5억 달러) 3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38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도입하는 등 외채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
- 2003년 5월에 국채의 채무재조정에 성공하여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으나, 총외채규모가 2005년 GDP의 73%인 123억 달러, 2006년 GDP의 64%인 112억 달러에 달하는 등 경제규모에 비해 과중한 편임.
- 한편, D.S.R.은 2005년, 2006년 각각 47%, 79.7%를 기록하며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이는 조기상환에 의한 것으로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Ⅲ. 정치·사회분야

1. 정치 및 국제관계

□ 2004년 10월 대선에서 179년 만에 처음으로 좌파정부 출범

- 1825년 이후 1972~84년간의 군부 통치기를 제외하고 콜로라도당(Partido Colorado)과 블랑코당(Partido Blanco)이 교대로 집권해왔음.
- 2004년 10월 실시된 대선에서 중도좌파연합인 Encuentro Progresista - Frente Amplio의 바스케스(Tabare Vazquez)후보가 당선되어 2005년 3월 취임하였음.
- 몬테비데오 노동자층 거주지역인 라 테하에서 태어나 암전문 내과 의사 경력을 가진 바스케스는 노동자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1990~94년 몬테비데오 시장을 역임했으나, 94년과 99년 두 차례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음. 바스케스의 당선은 지난 2001~02년 최악의 경제위기로 인해 기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집권당내 당파간 갈등 조정으로 지속적인 개혁정책 추진 전망

- 연합전선에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계열뿐만 아니라 과거 반군단체 정치그룹도 참여하고 있는 등 여러 분파가 존재하여 사안에 따라 집권당내 갈등이 발생하여 왔음. 특히 노동관계, 공공부문개혁 및 미국과의 FTA 추진과 관련하여 집권당내 양대 세력인 친시장주의 경제장관 Danilo Astori와 연합전선내 최대규모인 좌파정당 MPP(Movimiento de Participacion Popular)당의 당수이자 농업부장관인 Jose Mujica간의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 그러나, 2006년 7월 소작농 채무부담 경감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두 장관 세력간의 정치적 긴장관계가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조세개혁 및 기타 경제개혁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룸.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바스케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0년 3월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친시장적 경제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아르헨티나와 긴장관계 지속, 그 외 주변국과는 우호적 관계 유지

- 우루과이는 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창설하는 등 지역경제통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국은 브라질의 남부 공업지대와 아르헨티나의 동부 산업 중심지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단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주변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라플라타 강유역의 발전을 꾀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 접경지역에 두 개의 제지공장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대규모 반대시위를 주도하는 등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양국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아르헨티나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우루과이의 제지공장 건설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루과이는 동 공장의 건설을 계속 추진할 예정임. 동 프로젝트의 총투자액은 우루과이 2006년 GDP의 8.5%에 달하는 16억 달러로, 우루과이 역사상 단일 투자 건으로는 최대규모임.

□ 미국과의 FTA 추진 보류

- 정부의 친시장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노동조합 및 기업의 압력으로, 정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보류하고,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은 무역 및 투자협정(TIFA)를 체결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중산층이 발달되어 있는 안정적인 사회

- 우루과이는 백인이 절대다수(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계층구조상 절대빈곤층이 6%에 불과하며 중산층이 발달되어 있는 사회임.
- 남미국가 중 가장 낮은 문맹률(3%)을 기록하고 있으며, 군부의 정치개입 우려도 거의 없는 안정적인 사회임.

IV. 국제신인도분야

<표 3>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6	5	4
O E C D	(2004.6)	(2006.6)	(2007.6)
S & P	B-	B	B+
	(2003.6)	(2004.7)	(2006.9)
Moody's	B1	B3	B1
	(2002.7.10)	(2002.7.31)	(2006.12)
F i t c h	B	B+	BB-
	(2004.3)	(2005.3)	(2007.7)
I . C . R . G	92/140	81/140	79/140
	(2006.10)	(2007.4)	(2007.10)
Euromoney	84/185	86/185	85/185
	(2006.9)	(2007.3)	(2007.9)
I . I	81/173	80/174	77/174
	(2006.9)	(2007.3)	(2007.9)

자료 : OECD, S&P, Moody's, Fitch., I.C.R.G, Euromoney, I.I.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 비교적 양호

- 우루과이는 최근의 유리한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이용하여 2002~03년 당시의 채무를 장기, 저리의 신규채무로 바꾸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음. 2006년 3월에는 5억 달러의 채권발행 자금을 이용해 6.3억 달러의 기존 채무를 조기 상환한 바 있으며, 7월에는 17년 만기의 글로벌본드 5억 달러를 발행한 바 있음. 이러한 채무구조 개선을 통해 2007년 말까지의 외채원리금상환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임.

□ IMF, 우루과이의 경제개혁 노력 긍정적으로 평가

- 2005년 승인된 IMF의 3년 만기 11억 달러의 대기성차관과 관련하여, 2006년 6월 IMF는 네번째 검토를 마쳤으며, 바스케스 정부의 건전한 경제정책에 힘입은 빠른 경제 회복, 인플레이션 감소, 외환보유액 증가 및 채무구조 개선 등 우루과이 경제 전반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국가신용등급 지속 상승

- 동국은 과거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해 왔으나, 2002년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이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락하였음. 그러나 2003년 이후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됨에 따라 국가신용등급 또한 다시 상향 조정되는 추세이며, 2007년 7월 Fitch는 우루과이의 채무구조 개선 및 빠른 경제회복을 감안하여 동국의 신용등급을 BB-로 상향조정하였음.
- OECD도 2007년 6월 국가위험도평가 회의(CRE)에서 동국 신용등급을 4등급으로 한단계 상향조정함.

<표 4>

주요 ECA의 인수태도

미국 수은	한도범위내 전액 인수가능
영국 ECGD	개별심사
독일 Hermes	단기전액 인수가능

자료 : D&B.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4년 10월 17일(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문화협정('71년), 무역협정('81년), 경제과학기술협정('85년), 외교관 및 관용사증면제협정('93년)

□ 교역현황

단위: 천 달러

	2004	2005	2006	주요 품목
수 출	39,587	57,073	54,237	전자, 자동차, 섬유류
수 입	14,507	26,023	30,034	농산물, 가죽(모피제품)

자료 : KOTIS, 한국무역통계

□ 대 우루과이 무역수지 흑자 지속

- 우리나라 역시 전자, 자동차, 섬유류 등 제조업 위주의 제품을 우루과이에 수출하고, 농산물, 가죽 등 1차 산품 위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매년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V. 종합평가 의견

- 우루과이는 주요 수출품목이 1차 산품에 집중되어 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 외부상황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1999-2002년에는 경제위기를 겪기도 하였음.

- 그러나 2004년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하는 등 최근 몇년간 고도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바스케스 정부의 지속적인 친시장적 경제정책 추진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물가안정 유지, 채무구조개선, 수출시장 다변화 등 경제의 펀더멘탈이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음.